

Publication: iNews24

Date: 16/11/2011

Subject: Unlimited Expanding WiFi Can Make Itself Nuisance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18711&g_menu=020300

"무한정 확장한 와이파이,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

가트너 "와이파이 이용자들, LTE 과금방식 수용 회의적"

2011.11.16 수 18:16 입력

[김관용기자]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용자들의 와이파이(Wi-Fi)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넷이벤츠 2011 아시아 태평양 기자간담회에서 가트너 이안 킨 부사장은 "비디오나 음원 등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통사 입장에선 와이파이로 인해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통사들이 스마트폰 이용자 유치를 위해 앞다퉀 와이파이망을 구축했지만 더이상 와이파이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돼, 와이파이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안 킨 부사장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로 와이파이로 접속하는 비율이 최대 60%에 이른다"며 "와이파이는 이통사가 제어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아태 지역 이통사들은 총량에불루션(LTE)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대역폭 제공을 약속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다시 이통사가 제공하는 종량제 과금 방식을 원할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가트너 이안 킨 부사장 [사진=넷이벤츠]